

9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4586.32 (+33.95)		947.92 (+3.86)
	금리 (국고채 3년)		환율 (한·달러)
	2.942 (+0.040)		1459.00 (+8.40)

가전업계, 소비 칼바람
‘플랫폼·AI’로
돌파구 모색
02



몸집 줄이는 홈플러스 채권단과 협의 남았다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

벼랑 끝에 매달린 홈플러스가 회생을 위한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며 인가 후 인수·합병(M&A)을 위한 검토 및 협의에 나섰다. 다만, 대주주인 김병주MBK파트너스회장의 구속 여부가 변수로 남은데다, 주요 점포 폐점으로 인한 노조 반발도 예상돼 회생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최근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 수익성이 낮은 점포를 정리하고 물류센터 등 자산을 유동화해 채무를 변제하며 사업성을 개선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법원에 따르면 홈플러스 채권자협의회는 회생계획안에 반대 의견을 제기하지 않은 상황이다.

점포 정리하고, 물류센터 유동화
회생계획안에 채권단 반대 안해
노조 등과 세부방안 본격적 협의

MBK파트너스·메리츠증권 등서
3000억 긴급운영자금 대출 제한
경영진 4인 구속시 자금조달 변수

홈플러스는 노조, 채권단 등 이해관계자와 세부 실행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에 나섰다. 우선 생존의 가장 큰 변수가 될 3000억원 긴급운영자금에 대해서 홈플러스 측은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증권 및 산업은행 등 국책기관이 회생기업(DIP) 대출을 통해 참여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 현금 흐름 개선을 위한 자가점포(향후 3년간 10개) 매각, 6년간 부실점포 41개 정리를 통해 몸집 줄이기에 나서는 방안도 포함됐다.

홈플러스는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 메리츠증권의 선제적 고통분담을 전제로 국책 기관의 자금 지원을

이끌어내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구상이며, 이 같은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오는 2029년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이 1436억원 규모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다.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등 홈플러스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만일 경영진 4인의 구속이 결정되면 긴급운영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으며, 홈플러스 회생 절차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숨긴 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고의적인 손실을 입혔다고 보고 있다.

홈플러스측은 검찰이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 등 주요 경영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회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문제 삼은 매입채무유동화 전자단기사채권(ABSTB)은 신용증권이 독자적으로 발행한 상품으로, 홈플러스 경영진은 관여한 바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회생의 성패가 걸린 중차대한 시점에 경영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무리한 영장 청구”라며 “임직원과 협력업체 등 10만여 명의 생존권이 걸린 회생 절차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노조 반발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5개 점포를 추가로 줄이며 지속적인 인력 감축이 예상되는 탓이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5개 점포(▲가양점 ▲장림점 ▲일산점 ▲원천점 ▲울산북구점)를 폐점한 데 이어 이달 말까지 5개 점포(▲계산점 ▲시흥점 ▲안산고잔점 ▲천안신방점 ▲동촌점) 영업을 추가로 중단할 예정이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서울 소재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뉴시스



손 맛잡은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들

즈를 취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한병도(왼쪽부터), 진성준, 박정,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2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포

/뉴시스

m-커버스토리

혼란의 국제정세 속 ‘국익중심 실용외교’

중 이어 日 가는李

이재명 대통령, 내일 일본 출국
정상회담 등 총 5차례 대화 예정
韓日間 ‘셔틀외교’ 복원 가속화

현재 국제 정세는 냉전 종식 이후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질서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침공했고, 일본과 중국은 대만 문제로 서로 갈등하며 수출통제로 대립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자유무역 중심의 기존 질서가 약화되고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

난 4~7일, 3박4일 동안 국빈 자격으로 중국을 다녀온 것에 이어, 오는 13~14일에는 1박2일로 일본을 방문한다. 미중·중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중·한일 정상회담을 연이어 갖는 것은,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특정 국가에 쏠리지 않는 ‘국익중심 실용 외교’를 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관련기사 3면>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13~14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의 고향인 나라(奈良)현을 방문한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에서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지난 번엔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에서 한일 정상이 만난 만큼, 이번에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에서 만나 ‘셔틀 외교’의 복원을 가속화하려는 취지다.

이번 방일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첫 한국 대통령 방문이다. 한일 정상은 정상회담과 만찬, 공동언론 발표까지 이어지는 밀도 높은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소수 인사만 배석하는 단독회담과 확대회담, 1대1 환담 등 공식·비공식 대화를 포함하면 1박2일 동안 총 다섯 차례 대화가 예정돼 있다.

<3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

삼성·SK 덕분에… 국민연금 주식 평가액 70조 ‘쑥쑥’

4분기 5% 이상 지분보유 상장사
평가액 35% 급증한 266조 집계
삼성·SK가 증가분의 68% 차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4분기 국민연금공단의 국내 주식 평가액이 70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수익률이 높아진 만큼 연금 기금의 고갈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기 수익률이 1%포인트만 올라도 연금 고갈 시점은 당초 2064년에서 2071년으로 7년 늦춰진다.

1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해 공시 대상이 된 상장사들의 주식 평가액은 266조138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3분기 말(9월 30일) 196조4442억원보다 69조

6944억원 늘어난 규모로, 35.48% 증가한 수치다.

한 분기 만에 주식 평가액이 70조원 가까이 늘어난 배경에는 반도체 대형주들의 주가가 크게 오른 영향이 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4분기 평가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종목으로, 각각 26조1882억원, 21조967억원 늘었다. 이를 더하면 47조2849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 국민연금의 전체 주식 평가액 증가분에서 양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67.85%에 달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국민연금 지분율이 지난해 3분기 말과 지난 7일 기준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가 상승이 주식 평가액을 크게 끌어올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삼성전자의 지분율은 7.75%, SK하

이닉스는 7.35%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지난해 4분기 한국 기업 중 처음으로 영업이익 20조원(잠정치)을 기록하는 등 호실적에 기반한 주가 상승을 보였다. 이 기간 삼성전자 주가는 63.95% 올랐고 SK하이닉스도 106.11% 상승했다.

반도체에 이어 평가액이 많이 증가한 종목은 SK스퀘어(2조9595억원), 현대차(2조281억원), 삼성에프스홀딩스(1조1618억원) 등이었다.

지난해 전체 연금 수익률도 사상 처음으로 20%대를 기록할 것으로 확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국민연금의 연간 투자 수익률이 약 20%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종전 최고치였던 지난해 수익률 15%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메트로 한줄뉴스



▲이혜훈, 子 병역특혜 의혹 제기에 “불법·부당한 사항 전혀 없어”
▲이준석 “장동혁·조국 돈공천 특검 연석회담하자” 장동혁 “조건 없이 수용”
/사진 뉴시스

▲조국혁신당, 이준석 연석회담 제안에 “국힘에 ‘도주로’ 제시, 부적절”
▲‘성추행 의혹’ 장경태 “무고는 중대 범죄…왜곡 주장 책임 물을 것”

▲與 “김병기, 애당의 길 고민해보길…‘자진 탈당’ 요구, 애당심 발로”
▲정청래 “지도부 완전체 구성해李정부와 한몸·한뜻으로 움직일 것”